

『박성희의 일기』

『박성희의 일기 1/3』

나는 떠올렸다, 그날의 일을 여기에 적으려 한다. 또 잊어버릴지도 모른다, 잊을 리 없을 텐데.

그날, 성명진에게 조금 되갚아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설치한 고무보트 바닥이 울퉁불퉁한 바위에서 튀어나와 있어서 평평한 위치로 옮겼다. 정재현에게 보트 위치를 옮긴 걸 전하려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정재현이 성명진을 데려와서 당황했다. 바로 전화했으면 좋았을 텐데 보트를 원래 위치로 되돌리려 했다. 당황해서 바로 옆에 있던 돌을 못 보고 발을 부딪혀 넘어졌다.

그 돌은 묘비였다. 직후 온몸이 가위눌린 것처럼 움직일 수 없게 됐다. 손에서 빠져나간 휴대폰이 떨어진 충격으로 찰칵 사진 찍는 소리가 난다. 눈앞에 성명진이 추락한다. 성명진은 고무보트 없는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고 움직이지 않게 됐다. 그걸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박성희의 일기 2/3』

성명진이 죽은 건 내 탓이야. 내가 성명진을 죽였어. 하지만 죄 없는 정재현을 공범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런데도 나는 정재현에게 「우리는 공범이야」라고 말해버렸다. 점차 정재현을 입막음하려고 험박하게 됐다. 그런 나 자신이 싫었다.

2020년 6월 16일. 성명진의 1주기. 나는 자살하려 했지만 죽지 못했다. 성명진을 되찾을 방법 같은 건 없다. 없었던 일로 할 방법 같은 건 없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 때였다, 나는 우연히 어떤 물건을 손에 넣었다. 은색으로 빛나는 불가사의한 열쇠다. 만진 순간 열쇠 사용법을 이해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떠오르지 않는다.

『박성희의 일기 3/3』

희망을 찾은 나는 협박을 계속했다. 나는 성명진과 똑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정재현에게 죽임을 당해야 하니까. 그래서 정재현에게 일부러 안좋은 말을 했다.

하지만 정재현은 어딘가로 달아나버렸다. 하지만 그건 김지혜에게 들켰다. 그래서 김지혜의 증오를 부추기는 발언을 했다. 휴대폰으로 확인했다. 시각은 틀림없이 21시 55분. 성명진이 밀려 떨어진 그 시각에 김지혜가 나를 밀어 떨어뜨려줬다. 하지만 성명진처럼 즉사하지 못했다.

성명진이 죽을 때 울퉁불퉁한 바위는 철거되어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저주스러운 묘비를 절벽 아래에 두었더라면 즉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모든 건 거기서 시작됐다.

여기서부터는 그것에 대해 적으려고 생—

이상으로 일기장 내용은 끝나 있다.